

사막화 방지를 위한 동북아 국제 협력에서 한국의 비정부기구 활동(1)

박 동 균 / 동북아포럼 사무처장

이 글은 지난 10월 7~9일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된 동북아 황사대
응 방안 국제워크숍에서 동북아 산림포럼 박동균 사무처장이 발표한 자
료(영문)를 번역하여 3회에 걸쳐 여기에 실습니다. …… 편집실

I. 서론

산림은 지구 면적의 30%인 약 38억 7천만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대와 아열대 산림이 56%를 차지하고, 온대림과 한대림이 44%를 차지합니다. 인공 조림지는 전 산림의 5%정도이고 나머지 95%는 천연림입니다. 세계 평균 1인당 산림면적은 0.6ha 인지만 나라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0.2ha)는 1인당 산림이 매우 적은 반면, 오세아니아와 남아메리카는 1인당 상당한 면적의 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벌채와 산림 퇴화의 주요한 원인은 인구과밀입니다. 아시아는 전세계 산림면적의 14%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세계 인구의 대략 60%를 차지합니다. 2000년 세계산림평가보고서는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예상 순산림 감소 면적은 9.4백만 ha로 되어 있는데 14.6백만ha가 벌채되고 5.2백만ha의 산림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환경문제 때문에 기후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국토 사막화와 퇴화는 우리 지구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지 하는데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나무를 심고 산림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세계 산림의 약 1천2백만ha가 매년 사라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목, 생물의 다양성, 수자원을 포함하는 산림 자원의 손실을 막거나 재조림 또는 신규조림은

아시아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채된 지역에 대한 그 후의 재조림 면적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그 규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매년 재조림 되어야 하는 면적은 최소한 3백4십만ha로 추정되며, 동북아 지역에서 산림자원의 중요성은 막대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온대와 한대의 산림을 특색으로 하며 세계 산림 면적의 약 8%를 차지합니다. 동북아 산림자원의 중요성은 지구 탄소 순환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현재 진행중인 산림 생태계 퇴화는 감소의 징조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부 온대와 한대 지역의 산림 전체 범위가 근래에는 많은 변화가 없었지만, 많은 지역에서 종이 풍부하고 나이 많은 산림들이 2차 후계림이나 인공조림지로 꾸준히 대체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역의 온대와 한대림의 세계적 관심은 최근에 산불, 가뭄, 홍수와 같은 재앙적인 기후 변화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인간활동에 의해 나무가 없게되거나 저해된 반 건조 지역 땅의 많은 부분이 영원한 사막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은 침엽수 단순림에서 혼합활엽수림, 전형적인 스텝과 반 건조 식생으로 아주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1년 16.55%의 산림을, 2005년에는 사막과 퇴화된 산림 지역에 나무를 조림함으로써 26%가 되게 하려는 산림 보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목표달성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금이 부족합니다.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재원은 이 어려운 경제 기간에는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재조림을 위한 국제적 원조가 동북아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산림상태를 알고 적절한 자금을 모금하는 것이 이들 나라와 이웃 세계 사회의 주요 관심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 나무 식재의 녹색 계획은 국제적 녹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NGO(비정부기구)와 일반 시민들은 물론 국제적 기구와 정부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네트워크가 계획될 수 있고 이 일의 일부는 동북아 산림 생태계의 상승효과를 높이고 그리고 상당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네트워크의 열쇠는 참가국 정부와 NGO에 의한 활동의 조정입니다.

이 발표 내용은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국에서 퇴화된 땅의 복구에서, 동북아 포럼을 포함한 한국 NGO의 경험이 하나의 사례 연구로서, 재조림 사업의 추진 방법을 이해하도록 간략히 소개합니다. 두번째로는

산림과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중국과 몽골의 현재 상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화된 땅의 재조림 및 정부와 시민 단체의 참여 복구 모델과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재조림을 위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II. 한국에서의 산림 NGO의 활동

한국 산림의 대부분은 아직 어리고 경제적으로도 나무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은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 시민단체는 산림이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과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 기후 변화는 산림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재생가능한 자원의 현명한 이용보다는 오히려 자연의 보존에 역점을 두는 게 당연합니다. 최초의 국제 산림 운동 시민 단체는 동북아 포럼이고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시민단체는 평화의 숲입니다. 일련의 이들 산림 운동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왔고 평화의 숲과 동북아 포럼은 북한, 중국, 몽골에서 재조림 사업을 하는데 있어 성공적으로 시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1. 동북아산림포럼

21세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림의 보존으로 산림은 인간의 생존뿐만 아니라 경제, 생물의 다양성, 온실 가스, 탄소 추방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별채는 인간의 역사에서 어느 시대보다도 20세기에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산림이 사라짐으로서 산림을 보호하고 복구하려는 노력 또한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 세계적 추세는 냉전과 동·서의 이념 분쟁이 끝났을 때에 강화된 것으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세계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가 지구 환경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는 한나라의 특별한 상황이 인접 국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문화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공동 자산 형태를 가진 한 나라의 산림 자원의 그릇된 경영은 환경의 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매년 봄에 건강에 해를 주는 중국에서 오는 황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중요한 산림을 보존하고 퇴화임지를 복구하여 산림 생태계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 촉진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며 그 임무는 사막화와 산림 벌채에 대처하고, 황폐임지의 복구와 관련 당사들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동북아 지역 산림 생태계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인간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산림 생태계의 파괴는 중국, 몽골, 아프리카에서 보듯이 계속될 것이며 세계적이고 국가적 사회 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중국, 몽골, 극동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은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문화적 지역을 형성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한 나라의 산림은 다른 나라의 자연과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 지역에서의 여러 국가들이 임업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력이 오랫동안 요구되어 왔습니다. 동북아포럼은 이 지역에서의 산림 생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하게 보존할 목적으로 한 한국, 중국, 몽골 그리고 일본 전문가의 학술네트워크 입니다.

국제적 협력은 동북아에서의 산림 복구와 재조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증가일로에 있는 의사교환과 환경 교육, 지속가능한 임업 및 산림의 보전에 대한 정보 교환과 특히, 북한의 농업 복구 및 환경 보호 사업과 그리고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 식재, 산림 과학 신문과 회보 발간, 시사 뉴스와 간행물들을 새롭게 갱신하는 데에 있습니다.

동북아포럼의 주요한 단기 사업은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원상 복구하고 중국, 몽골의 사막화 방지, 참가국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주기적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기 사업은 동북아 임업 문제들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산림 정책의 공동 추진입니다. 장기 사업은 극동 러시아에서의 한대림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

용하는 장기 연구와 프로그램을 예의 관찰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동북아포럼은 2001년과 2002년 중국과 몽골에서 한국-중국, 한국-몽골간 우호관계를 수립는데 참여했습니다. 지금 동북아포럼은 북한이 재조림을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퇴화 양묘장의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생명의숲

유한김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는 환경 보호에 대한 공중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1998년 생명의 숲과 동북아산림포럼 그리고 1999년 평화의 숲, 2000년 1월에 발족한 내셔널 트러스트를 포함하는 몇 개의 국민 환경운동을 이끌어 냈습니다. 생명의 숲은 나무 가꾸기를 통해 임업, 환경, 문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선진국 가운데에 놓기 위하여 1998년 3월에 발족했습니다. 지금 한국 산림의 대부분은 조밀하게 심은 어린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들이 보다 뾰뾰하게 자라기 때문에 드문드문하게 조림하거나 공지에 이식한다면 한국의 전체 산림 면적은 3배로 늘어 날 것이며 현재, 이 운동은 나무를 손질하고 돌보려는 2만명의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기업체, 임업 전문가, 산림 행정기관 등이 이러한 공동 목표 아래에서 연합하여 조림을 하고 30년 이상 거의 방치된 산림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은 산림청으로 원숙한 보존, 지역사회의 인식, 성숙과의 조화, 생명에 대한 존중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매체는 "시민 행동주의의 새로운 모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노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평을 했으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시민 운동입니다.

최근에, 평화의 숲은 서울시를 녹화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녹색 트러스트는 시민들을 위한 휴양공원과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서울시민을 초대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3. 평화의숲

평화의 숲은 북한의 벌채지에 나무를 심도록 도움으로써 한반도의 생태를

복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식량 증산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 운동입니다. 1970년 중반부터, 북한은 연료 사용과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무를 벌채했습니다만 그 결과 북한의 산림은 황폐되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게 되었고 이러한 북한 산림을 가급적 빨리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돕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평화의 숲의 설립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논리적 결과입니다. 평화의 숲은 1999년 4월 27일 설립 후 제일 먼저 북한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회동했고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그 회의에 뒤이어 평화의 숲은 소나무 종자 100kg, 분무기 200대, 전정가위 1,000개, 플라스틱 판 2톤, 비료 1.5톤을 1999년 5월 22일 인천-남포 해로를 통해서 첫번째 선적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공급 물품과 산림장비를 선적한 2002년 3월까지 여섯번째 선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